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 순모임 자료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 여름성경학교(9.21.)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지,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사모님,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 장윤경 사모님 아버님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9/15)	다음 주(9/22)	9/29
기 도	주일오전예배	이승재 전도사	이윤경 성도	이강진 서리집사
	주일오후예배	이빛나 성도	이승재 전도사	이윤경 성도
성경 봉독		최수연 성도	편재천 성도	하유미 성도
식사 준비		오숙현 순	이강진 순	장윤경
정리		이강진 순	이윤경 순	김윤기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제6권 37호 2019.9.15.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	예 배 부 림	인	도	자
♣	기 원	인	도	자
♣	송 영	찬송가 23장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110장, 찬송가 64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26편		최 수 연	성 도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야고보서 1장 1-4절		김 윤 기	목 사	
[온 교회를 위한 편지]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204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현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이승재	전도사	
♣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다 같 이
 기 도: 이빛나 성도
 주 제: 특강 종교개혁사 8장
 합심기도: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37주일
 찬 송: 다 같 이
 본 문: 시 57:6-11
 설 교: 정한 마음
 기 도 회: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10시30분
-------	-------------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1시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1시00분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37주일 - 십계명에 관하여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 성인(聖人)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 설교 노트: 약 1:1-4, 온 교회를 위한 편지

1. 온 교회를 위한 편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녹여낸 성경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에 있는 십계명의 본의를 드러내신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유력한 지도자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온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1절; 행 12:17; 15:13; 갈 2:9).

2. 기쁨으로 쓰는 편지

1절에 "문안하노라"는 말은 '기쁨으로 편지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야고보는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2절). 그럼에도 기쁨으로 편지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은 우리 최종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함으로 이끌고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사용하여 우리를 정련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시험을 당하나 복이 있는 사람들이며, 천국 백성이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마 5:10-12). 하나님은 시험조차도 우리를 단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3. 온전함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한 격려

믿음의 시련은 놀랍게도 인내를 만들어 내고, 인내는 온전함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방향성은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 제시하신 것입니다(마 5:48). 하나님 백성이 결국에 이를 목적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온전한 소망을 향해 갑니다(롬 5:2-5). 이 믿음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롬 5:8).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을 이루기까지 계속되며 온전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롬 8:30).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빌 1:6).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를 천국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으니 기뻐하며, 힘써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마 7:24-27).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기에 안전합니다. 그것이 우리 위료요 격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